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현장공연이 오는 16일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 열린다.

우리 고유의 소리로 흥겨운 한마당

16일 순창서 농요금과들소리 현장공연 열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현장공연이 오는 16일 순창군 금과면 매우리 순창농요금과들소리전수관에서 열린다. 순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금과들소리와 경남 고성농요, 충남 홍성결성농요, 임실팔팔농악 등 다채로운 우리 고유의 소리를 선보이며, 흥겨운 한마당이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영·호남과 충청 지역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지역의 거리를 좁힌 하나된 소리로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는 지난 2005년 전북도 무형문화재 제32호로 지정 받은 이래 예능보유자

이정호씨가 그 명맥을 이어오다 지난 2017년에 별세한 후 이기수, 윤영백, 김희정 등 총 3명의 이수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6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회장 류연식)는 순창장류축제 등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가해 금과들소리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50회 전북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제60회 전국민속예술축제 전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순창농요금과들소리는 곡조의 분화가 다채롭고 음계와 선법이 판소리의 우조 및 계면조와

일치하는 것이 다른 지역 농요와의 차이점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농요 부문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 지정 신청을 했고, 올 하반기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현지조사와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금과들소리는 도내 유일한 농요부문 무형문화재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순창만의 고유 농경문화유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금과들소리전수관 마당에 동행 야외공연장이 건립되어 앞으로 상설공연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창=이영원기자

부안예술회관, 운영평가 전국 1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부안예술회관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회관 217개 중 운영평가 1위를 하여 13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가 주최하는 제12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대구컬러풀페스티벌 퍼레이드에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포스댄스컴퍼니가 대상을 차지한데 이어 문화예술회관 운영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함으로써 부안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17개 문화예술회관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운영활성화, 지역문화기여도, 인지도, 혁신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1차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서면평가와 서울 정동극장에서 2차 PT 발표

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2001년 10월에 개관한 부안예술회관은 부안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으로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과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통해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민간예술단체와 연합체를 맺어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기획·운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진행한 점을 인정받은 명예회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뮤지컬 Music' an 토크 콘서트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27일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프로그램인 Music' an 토크 콘서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 이진명과 류현지가 펼치는 주옥같은 뮤지컬 곡과 토크쇼가 결합된 특별한 콘서트다. 뮤지컬 배우 이진명은 '시카고', '미스 사이공', '두란도트', '잭 더 리퍼', '삼총사'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한 국내 최고 베테랑 배우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과 '고김광석의' '나의 노래' 등으로 뮤지컬과 대중가요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권 예매는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판매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 함열향교서 전통문화체험 '3樂' 큰 호응

익산 함열향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이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백제왕도 1번지 익산, 함열향교의 3樂'을 주제로 '노는 즐거움', '공부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 9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지역 학교와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8회까지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으며 오는 10월까지 총 23회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9일에는 한글날을 맞아 향교, 삼부자집, 함라산 등을 소재로 시화, 백일장, 사생대회와 진행돼 참가자들이 문화·예술적 기량을 뽐낼 기회가 주어지며 12일에는 기존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초대해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해 체험담을 공유하고 되새겨보는 화합의 자리가 마련된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황등 남초등학교 5학년 학생 26명이 유생복을 입고 함열향교 탐방과 전통예절 체험, 미선수행 활



동 등을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과거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배우고 전통문화와 교감하는 기회를 가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존의 향교가 가지고 있는 접근하기 어렵고 딱딱한 공간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색다른 경험들을 통해 현대적 의미에 맞는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탈바꿈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며 “향교가 과거의 교육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민간의 소통을 주도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이 원기중 국문학 박사과 왕기석 명창이 이끌고 가는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의 네 번째 공연인 춘향가 중 '해후'를 오는 22일 예음헌에서 개최한다.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 '담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서 22일 무료공연 개최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이야기가 있는 판소리-담판의 네 번째 공연인 춘향가 중 '해후'를 오는 22일 예음헌에서 개최한다. <담판>은 판소리 사설의 의미 풀이, 시대적 배경 등의 판소리 해설과 감상을 비롯해 당대 판소리 명창들의 고품반도 만나는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대중들에게 판소리의 흥미를 높이고 있다. 3월부터 진행된 <담판>은 춘향가의 만남, 이별, 고난에 이어 마지막으로 해후를 주제로 펼쳐진다. 원기중 국문학 박사과 왕기석 명창 두 명의 진행자가 이끌고 가는 <담판>은 6월 공연으로 춘향가를 마무리 짓고, 하반기(8월~11월) 중 4회에 걸쳐 흥부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담판>은 전석 무료로 관람 문의를 전화(063-620-2324~5)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플러스친구 추가)을 통해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